

주간 통일정세

2017-42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23	北 신문 “인민에 멸사복무” 강조…내부결속 의도 관측(연합뉴스)
	10.26	北 김정은, ‘연암’ 시진핑에 축전…“북중관계 발전 확산”(연합뉴스)
		北 “세도·관료주의 등 온갖 위법 현상들과 강한 투쟁”(연합뉴스) 北 “美 제재압박, 체육에도 축수…반드시 대가 받아낼 것”(연합뉴스)
군사	-	-
경제	10.24	北 신문 “전력·석탄은 제재 깃부수는 최전선”…중산 독려(연합뉴스)
사회	-	-
문화	-	-
외교 국방	10.21	北, 한미해상훈련 안보리 긴급의제로 채택 요구…의장에 서한(연합뉴스)
	10.23	北 “日, 국회해산 우리와 억지로 연결…경거망동 말아야”(연합뉴스)
	10.25	北 신문, 유엔 개혁 촉구…“총회의 최종결정권 보장돼야”(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0. 26.

■ 北 김정은, ‘연입’ 시진핑에 축전…“북중관계 발전 확신”(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25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으며,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당신이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이어 “오늘 중국 인민은 습근핑(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섰다”며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나는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0. 26.

■ 北 “세도·관료주의 등 온갖 위법 현상들과 강한 투쟁”(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제6차 전국법무일꾼대회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함.
- 신문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어긋남)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특히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법 집행에서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법 규범과 규정에 어긋나게 경영활동과 경제관리를 하는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한 온갖 위법현상들과 강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0. 23.

■ 北 신문 “인민에 멸사복무” 강조…내부결속 의도 관측(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주민들에 대한 ‘멸사복무’가 반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당원들의 헌신을 주문함.
-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을 통해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은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조건에서 핵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는 세계가 다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당은 우리 조국을 초강력 열핵무기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 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하였다”고 강변함.

2017. 10. 26.

■ 北 “美 제재압박, 체육에도 흡수…반드시 대가 받아낼 것”(연합뉴스)

-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26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광란적인 제재압박 소동은 체육 부문에까지 깊숙이 흡수를 뻗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위원회는 “미국은 제재 항목에 각종 체육 기자재를 포함시켜 놓고 그 판매뿐 아니라 국제 체육기구들이 우리에게 기증하는 체육 기자재의 해당 나라 통과도 차단시키게 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열하고 끈질긴 압력으로 일부 나라들이 우리와 합의하여 평양에서 진행하게 되었던 정상적인 내왕 경기가 한해가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함.
- “국제 체육기구들은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인간의 체력 발전과 현대

문명을 추동하는 체육 이념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온갖 형태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제재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히 계산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10. 24.

- 北 신문 “전력·석탄은 제재 짓부수는 최전선”...증산 독려(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4일 ‘전력·석탄 공업부문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력, 석탄 생산을 늘리는 것은 올해에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나라의 수력 자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에 예년에 없이 비가 적게 내리고 고온현상이 계속된 것으로 하여 수력발전소들의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밝힘.
 - 이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력과 연료, 원료 수요를 충족시켜야 올해 (경제) 전투 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 수 있다”라며 전력·석탄 증산의 필요성을 강조함.
 - 노동신문은 “오늘 전력·석탄 전선은 적대세력들의 초강도 제재를 짓부수는 최전선과 같다”라며 “전력 생산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석탄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전기와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라며 전력·석탄 절약도 주문함.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7. 10. 23.

■ 北 “日, 국회해산 우리와 억지로 연결…경거망동 말아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2일 “일본 반동들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 아태평화위는 이날 밤 ‘일본 당국은 전체 조선민족의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북핵 위협’을 빌미로 중의원을 해산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경고함.
- 아태평화위는 담화에서 “일본 당국이 저들의 열악한 정권 운영 능력으로 하여 초래된 국난이 마치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산생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면서 ‘위기 타개의 구심점’은 저들밖에 없다고 분별을 잃고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0. 21.

■ 北, 한미해상훈련 안보리 긴급의제로 채택 요구…의장에 서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가 미국이 또다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공화국을 핵 선제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은 것과 관련하여 2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고 전함.
- 서한은 “냉전 시기에 시작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은 냉전 후에는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더 공격적인 성격”이라며 “우리는 유엔헌장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유엔안보이사회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을 긴급의정으로 상정·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소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유엔안보이사회가 자기의 사명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다 훼손시키고(내버리고) 일개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0. 25.

■ 北 신문, 유엔 개혁 촉구..“총회의 최종결정권 보장돼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유엔의 날’ 이튿날인 25일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는 유엔개혁문제’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미국의 세계제패 정책을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채택된 대북결의를 대표적 사례로 거론함.
- 그러면서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며 “성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유엔 총회의 최종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유엔 총회가 유엔의 활동 전반을 주관하는 것은 응당하다”며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도 최종 검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23		美대사대리 “FTA 발효후 對韓무역적자 2배로 늘어…시정 필요” (연합뉴스)
	10.24	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아태지역 평화·안보 핵심축”(연합뉴스)	
	10.26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자유아시아방송)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 선재에 반덤핑 예비판정…10.09%(연합뉴스)
	10.26	미 국방장관 27일 JSA방문…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자유아시아방송)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25	文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한반도 평화 협력 기대” (연합뉴스)	
	10.26		주중 韓대사관 개천절·국군의날 행사에 中차관보급 참석 예정(연합뉴스)
			中 “한중관계 발전 장애물 함께 극복 원해…우호 회복 바란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24	文대통령, 아베 日총리와 전화통화…총선 승리 축하(연합뉴스)	

	10.25		日, 한국에 탄약지원협정 제의...한미일 외무차관회의서 언급 (연합뉴스)
	10.26		日, 韓외교부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노력' 발언에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0.26	트럼프, '연임' 시진핑에 축하 전화...“북한·무역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10.21	美폭격기, 규슈 주변 상공서 日전투기와 공동훈련(연합뉴스)	
미일 관계	10.23	트럼프·아베 통화...총선 승리 축하·北압력 강화 연대(연합뉴스)	
	10.24	美공군, 日시작으로 F-35A기 아태 순환 배치 본격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0.21		러 외무차관 “러시아와 미국, 北·이란 핵문제 관련 대화 계속”(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0.24		日방위상, 중·러 국방장관과 접촉...대북대응 논의(연합뉴스)
	10.26	“中 6자회담대표 궁쉬안유, 27~28일 방일”...北문제 논의할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0.24		러시아 총리 이달 말 중국방문...북핵 문제 조율할 듯(연합뉴스)
	10.25		푸틴, 연임 성공 시진핑 주석에 축전...“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0.26		러 “日과 영토분쟁 쿠릴열도에 해군기지 건설 추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0. 23.

■ 美대사대리 “FTA 발효후 對韓무역적자 2배로 늘어…시정 필요”(연합뉴스)

-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미민관합동경제포럼 축사를 통해 “한미 FTA야말로 양국 경제 연계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밝힌 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심각하며, FTA 발효후 적자가 2배로 불어난 사실”이라고 발언함.
- 그는 “양국 간 교역관계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이런 문제의 시정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미 양자가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힘.
- 그는 또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내 미국 외교정책과 안보 정책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여전히 강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한국을 방문할 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함.

2017. 10. 24.

■ 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아태지역 평화 안보 핵심축”(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전함.
- 두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기간 별도의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가 논의됐다고 화이트 대변인은 전함.

■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자유아시아방송)**

- 한·미·일 3국이 24일부터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이지스 구축함들이 참여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미사일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활용해 가상의 북한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3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Plus)’에서 발표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대북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함.

2017. 10. 26.

■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 선재에 반덤핑 예비판정...10.09%(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된 탄소·합금강 선재를 조사한 결과 포스코 등 한국 탄소·합금강 선재 제조·수출업체에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는 미국 철강업체들이 요구한 33.96%~43.25%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 업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체에 각각 최고 147.63%와 142.26%의 예비관세가 부과된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음.
- 상무부는 법정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내년 1월 최종 결정을 공표할 예정임.

■ **미 국방장관 27일 JSA방문...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자유아시아방송)**

- 한미 양국의 안보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국방부가 26일 밝힘.
-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 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며,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임.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7일에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임.

나. 한·중 관계

2017. 10. 25.

■ **文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한반도 평화 협력 기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축전을 보냄.
-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금번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함.
- 또한 “본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과 다시 만나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2017. 10. 26.

■ **주중 韓대사관 개천절·국군의날 행사에 中차관보급 참석 예정(연합뉴스)**

- 2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천샤오둥(陳曉東) 외교부 부장조리가 내일 베이징(北京) 쉐리툰의 대사 관저에서 열리는 ‘2017년도 대한민국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중국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작년 주중 한국대사관 주관의 개천절 및 국군의 날 행사에는 중국 측 주빈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올해 행사에는 천 부장조리를 포함해 정치·경제·문화·학술·군사 등의 중국측 각계 인사가 참석하며 여기에 주중 외교단과 교민을 합하면 참석인원이 1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밝힘.
- 노영민 주중대사는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 축사를 통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 조기 실현에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임.

■ **中 “한중관계 발전 장애를 함께 극복 원해...우호 회복 바란다”(연합뉴스)**

- 경왕(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지도부 출범에 따라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연합뉴스 기자가 평론을

- 요구하자 “중국은 현재 양국관계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한국과 함께 극복하길 원한다”며 “각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점차 회복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 경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양국은 수교 이래 양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해 왔고, 경제·무역·인문 등 영역에서 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평가함.
 - 한국과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전후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2년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등 관계 개선 흐름을 보여 왔으며, 19차 당대회 폐막일인 24일에는 허베이(河北)의 한 중국 여행사가 한국 단체여행이 금지된 지 7개월 만에 단체관광객 모집을 시작하기도 함.

다. 한·일 관계

2017. 10. 24.

■ 文대통령, 아베 日총리와 전화통화…총선 승리 축하(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아베 총리의 총선 승리를 축하함.
-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네 차례 연속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총리의 정책과 비전, 리더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역대 총리들의 기록을 경신하시면서 일본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기 바란다”고 덕담을 전함.
- 이에 아베 총리는 “축하 전화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문 대통령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함.

2017. 10. 25.

■ 日, 한국에 탄약지원협정 제의…한미일 외무차관회의서 언급(연합뉴스)

-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무차관 회의에서 일본측이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자고 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함.
- 스기야마 사무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음.

-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당분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2017. 10. 26.

■ **日, 韓외교부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노력’ 발언에 항의(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시작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2015년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2015년 합의에서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자제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가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과정에서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한일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러한 지적에 대해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0. 26.

■ **트럼프, ‘연임’ 시진핑에 축하 전화..“북한·무역 논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지도자인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AFP통신과 APTN,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함.
-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AFP에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연임된 뒤 두 정상이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함.

-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 주석의 비범한 승격을 축하하려고 그와 얘기를 나눴다”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 북한과 무역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함.

나. 미·일 관계

2017. 10. 21.

■ 美폭격기, 규슈 주변 상공서 日전투기와 공동훈련(연합뉴스)

-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규슈(九州) 주변 상공에서 공동 훈련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B-1B 전략폭격기 2대는 일본 규슈 주변 상공에서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와 공동 훈련을 했으며 이후 한국 공군의 F-15 전투기와 동해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함.
- 항공자위대는 이번 미일 공동훈련의 목적은 “공동 대응능력과 부대의 전술 기량 향상”이었다며 편대 비행 훈련을 했다고 설명함.

2017. 10. 23.

■ 트럼프-아베 통화·총선 승리 축하 北압력 강화 연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에게 “대승리를 축하한다.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발언함.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에 따르면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 연대하자고 재차 의견 일치를 봄.

2017. 10. 24.

■ 美공군, 日시작으로 F-35A기 아태 순환 배치 본격화(연합뉴스)

- 미국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태평양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내달 초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제34 전투비행단 소속 12대의 F-35A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와 300여 명의 병력이 6개월간 작전 배치된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아태 지역에는 올해 초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전진 배치된 해병대 제121 전투비행대대 소속 F-35B기 10대가 유일하며, 6대가 추가로 연말까지 일본에 배치될 예정임.
- 미 공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실전 투입 태세를 갖췄음을 나타내는 ‘초도 작전능력’(IOC)을 확보한 F-35A 기종의 아태 지역 실전 배치를 가속할 계획임.

다. 미·러 관계

2017. 10. 21.

■ 러 외무차관 “러시아와 미국, 北·이란 핵문제 관련 대화 계속”(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가 20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회의’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핵합의의 미래 등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발언함.
- 라브코프 차관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기존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란과의 협정은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종합적 합의이며 이것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

라. 중·일 관계

2017. 10. 24.

■ 日방위상, 중·러 국방장관과 접촉…대북대응 논의(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2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잇따라 접촉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에 참석한 창완취안 국방부장과 짧은 만남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또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격인 ‘해공(海空)연락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음.

-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쇼이구 장관과도 접촉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2017. 10. 26.

■ **“中 6자회담대표 궁쉬안유, 27~28일 방일”…北문제 논의할 듯(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궁쉬안유(孔鉉佑)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겸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오는 27~28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북수의 중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궁 부장조리는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 심의관(차관보급) 등과 만나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교도통신은 궁 부장조리의 방일 시 “일본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중일 양국 정부 간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함.

마. 중·러 관계

2017. 10. 24.

■ **러시아 총리 이달 말 중국방문…북핵 문제 조율할 듯(연합뉴스)**

- 경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 대변인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메드베데프 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며 메드베데프와 리커창 총리는 제22차 중러 총리 회담을 할 계획이다”고 발표함.
- 메드베데프 총리의 이번 방중은 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 중국과 러시아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큼.

2017. 10. 25.

■ **푸틴, 연임 성공 시진핑 주석에 축전...“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연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크렘린궁이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표결 결과는 시 주석의 정치적 권위와 그가 추진하는 가속한 사회·경제발전 노선에 대한 지지, 그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전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함.
- 푸틴은 이어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시주석 총서기 연임)은 러-중 양국의 신뢰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바. 일·러 관계

2017. 10. 26.

■ **러 “日和 영토분쟁 쿠릴열도에 해군기지 건설 추진”(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프란츠 클린체비치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이날 통신에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현재 이행 단계에 있다”고 소개함.
- 해군 기지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사할린주(州) 쿠릴열도 중부에 위치한 마투아 섬에 건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0.21	호주·슬로바키아 “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초점 맞출 것”(미국의소리)
	10.24	인권전문가·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탈북자들 만나야”(미국의소리)
		미 북한자유연합 “미 상원, 북 인권법 재승인 해야”(자유아시아방송)
	10.26	미 단체 “북한, 일반 교화소에도 정치범 수용...수감 실태 심각”(미국의소리)
	10.27	美전문가, 北교화소 위성사진 공개...“구금중 다수 사망”(연합뉴스)
		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제재, 北주민 인권악화 우려”(연합뉴스)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주범 지목...“인권침해로 무기 프로그램 지탱”(미국의소리)
美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들, 행동에 따른 결과 직면할 것”(미국의소리)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야”(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10.27	외교부, 美 3차 ‘北인권제재’에 “인권개선 노력 기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0.23	통일부 “탈북민 부부 중국서 연락끊겨...관계기관 조사중”(연합뉴스)
대북지원	10.24	대북 지원금 17만 5천 달러 모금 중...북한은 세계 최악 기독교 탄압국(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0. 21.

■ 호주·슬로바키아 “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초점 맞출 것”(미국의소리)

- 유엔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호주와 슬로바키아가 북한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다루는 것이 유엔인권이사회 임기 중 호주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이사국 선출이 확정된 16일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 세계 인권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특히 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지목함.
- 호주는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활동할 유엔인권이사회 15개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선출됨. 호주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2017. 10. 24.

■ 인권전문가·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탈북자들 만나야”(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 중에 북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권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 촉구함. 특히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만날 것을 권고함.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도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서는 강제노동이 경제의 핵심 부분이 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나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함.
- 로버트슨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들의 설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미 북한자유연합 “미 상원, 북 인권법 재승인 해야”(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인권단체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이 다음 달 초 상원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솔티 대표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한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H.R. 2061)’이 하루 속히 상원(S.1118)에서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함.
-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다시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5년 간 재연장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해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내졌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솔티 대표는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 정부 고위직 관리들의 인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2017. 10. 26.

■ **미 단체 “북한, 일반 교화소에도 정치범 수용…수감 실태 심각”(미국의소리)**

- 북한의 불법 구금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옴.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화소에도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고 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6일 발표한 북한의 교화소에 관한 보고서에서, 량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화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 범죄자들뿐 아니라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치범이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는 12호 전거리교화소와 1호 개천교화소 등 확인된 교화소가 6곳, 그리고 신의주교화소와 사리원교화소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교화소가 19곳이라고 밝힘. 하지만 북한의 교화소에 수감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중에 정치범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능력은 없다고 덧붙임.
- 그러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범죄로 간주될 수 없는 범죄 혐의로 이들 교화소에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함.

2017. 10. 27.

■ **美전문가, 北교화소 위성사진 공개…“구금중 다수 사망”(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인권 및 수용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 고문은 26일(현지시간) 북한 전국의 노동교화소들을 찍은 새로운 위성사진들을 공개하고 교화소 내 끔찍한 인권 탄압 실태를 비판함.
-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의 저자로도 유명한 호크 고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유사 강제수용소’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교화소들을 촬영한 위성사진 20장을 내놓음.
- HRNK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구금시설 위성사진 20장을 통해 북한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설명했다.
- 호크 고문은 위성사진 외에도 북한 교화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나 교화소 경비병 출신 탈북자 40명을 지난 15년간 직접 인터뷰하고 한국의 자매단체 2곳으로부터 탈북자 수천 명의 증언을 수집함으로써 교화소의 실상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다고 밝힘.

■ **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제재, 北주민 인권악화 우려”(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키타나 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함.
- 키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이미 절박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함.
- 키타나 보고관은 “대북제재로 북한 암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나 휠체어를 비롯한 장비 수송이 봉쇄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에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도 물품 공급을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데 더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재들이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주범 지목…“인권침해로 무기 프로그램 지탱”(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등 가해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함.

-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소개함.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처형, 강제노동, 고문, 장기간 임의구금,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 낙태 등의 성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임.
- 아울러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통제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함. 해외에 있는 북한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개인들을 강제 복송하기 위해 보위 요원을 파견함.
- 보고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무부가 판단하는 가해자 7명을 나열함. 조경철 보위국장과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을 비롯해 정영수 노동상, 리태철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구승섭 선양주재 총영사,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이 포함됨.
- 국무부는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도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꼽음.

■ **미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들, 행동에 따른 결과 직면할 것”(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경고함.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함.
-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인권 유린을 중단해야 말함. 그리고 계속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같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면 앞으로 발표할 보고서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함.

■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야”(미국의소리)**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힘.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유린에도 우려를 표시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26일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출석해, 제재가 필수적인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을 누리는 데 직접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함.

- 따라서 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어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0. 27

■ 외교부, 美 3차 ‘北인권제재’에 “인권개선 노력 기여”(연합뉴스)

- 정부는 27일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3차 ‘인권제재’ 조치에 대해 “미 북한인권법의 지속 연장 시행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각종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정부는 이날 발표한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3차 제재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3차 보고서 및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호응하여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0. 23

■ 통일부 “탈북민 부부 중국서 연락끊겨…관계기관 조사중”(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30대 탈북민 부부가 재입북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거론되는 부부가) 10월 중순에 중국으로 출국해서 연락이 끊긴 상황이고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힘. 또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재입북 탈북민 규모는 26명이라고 밝힘.

- 정부는 북한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재입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주옥순이라는 여성이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에 등장해 재입북했다고 주장함.
- 통일부는 재입북 방지대책에 대해선 “무엇보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관계기관, 민간, 지자체가 협업해서 탈북민들이 하루빨리 자립해 우리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함.

5. 대북지원

2017. 10. 24

- **“대북 지원금 17만 5천 달러 모금 중...북한은 세계 최악 기독교 탄압국”(미국의소리)**
 -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 미국 지부가 북한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17만 5천 달러를 모금하고 있음. ‘오픈 도어스’ 미국 지부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번 모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힘.
 - ‘오픈 도어스’는 북한인들 특히 북한 기독교인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오픈 도어스가 매년 전 세계 기독교 탄압 실태를 조사하는데, 북한은 16년 째 최악의 탄압국으로 지목되고 있음.